

대한상의 브리프

2017년 5월 29일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역 상대국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통상 전문가가 한미 무역 관계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어디로?

“자료를 찾으러 모처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보호주의 냄새로 가득한 내용도 끔찍하지만, 디자인이나 색상이 내가 알던 미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것 같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로만 장식된 초기 화면은 이제 세계 자유무역을 견인하는 미합중국은 사라졌음을 알리는 조종(弔鐘)을 울리는 듯하다.”

옛 외교통상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가 지난달 초 SNS에 남긴 글이다.

올해 1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려했던 FTA 개정 문제가 잠잠한가 싶더니 최근 다시 불거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월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FTA를 개선(reform)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FTA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FTA 체결 이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 2배 늘었다는데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전면적 개정 협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기존 경제·통상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reform’을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4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본격화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특히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맥락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 정책으로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한미 FTA도 타킷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리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마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미국이 개정 협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폭 증가가 한미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실제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없었으면 2015년 기준 440억달러에 이르렀을 적자가 협정 덕분에 283억달러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때문에 되레 적자 폭이 줄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對美 상품무역수지 및 서비스수지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억 달러)

구 분	'11	'12	'13	'14	'15	'16
상품무역수지(A)	116	152	205	250	258	233
서비스수지(B)	△109	△125	△111	△110	△141	—
총 무역수지(A+B)	7	27	94	140	117	—

(증감액) : 전년대비 증감액

美 'FTA 개선 요구 항목' 예상해아

또 미국은 상품무역수지 적자만 강조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에 대한 흑자 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011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109억달러였지만 2015년엔 141억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서비스업에 강점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한미 FTA 체결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2012년 3월15일 한미 FTA 발효를 위해 지금까지 70개가 넘는 법령을 손질했다. 협상 당시 미국의 개방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내법과 제도를 상당히 뜯어고쳐 미국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한미 FTA와 같은 이슈는 '통상 주판' 속에서만 다뤄지지 않는다. 미국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이슈와 이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A로 인한 무역적자가 아닌 것을 FTA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선거 기간 중 해온 얘기가 있는만큼 안 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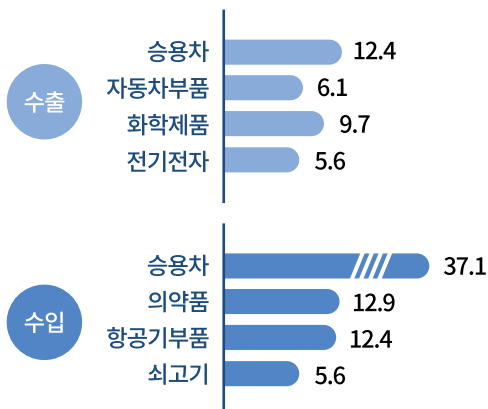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FTA의 어떤 부분을 개선(reform)하자고 요구해올지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고 받을 항목들에 대한 꼼꼼한 계산을 거쳐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3월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 원활화는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한국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냉동 오렌지 주스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 업체가 미국산 오렌지를 100%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2014년 현지 조사를 벌였다.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오렌지가 원료로 섞여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이 발행한 품질보증서를 한국 관세청이 신뢰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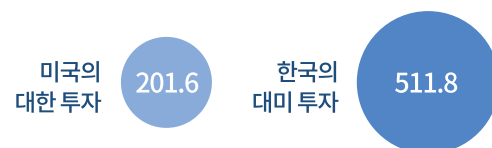


[한미 FTA 발효 5년 효과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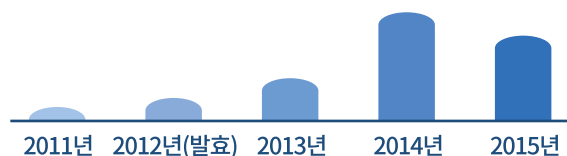
대미 주요 수출입 품목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FTA 발효 후 미국보다 2배 많이 투자 (단위 : 억달러)



FTA 이후 미국 무기체계 흑자 (단위 : 조원)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한미 FTA에 따라 지난 3월 3단계 자유화 조치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로펌이 국내에서 합작 법인을 만들 때 지분율과 의결권이 49%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는 것은 차량 연비 규제, 수리 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대리점이 아닌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방향지시등 색깔 변경 등이다.

미국의 ‘불만’ 대응방안은 ?

무역장벽 보고서뿐 아니라 지난해 3월 당시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이 한미 FTA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미국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투명성 부족,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 확대 등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을 산정한 뒤 제약회사가 가격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공무원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독립적 기구에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이고, 한미 FTA 발효로 국내에 도입됐다.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심평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자. 반면 한국은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왔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한미 FTA의 전면적 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한미 FTA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 개정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향후 미국이 요구할 통상 이슈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업계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5월 29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4	2015	IMF		OECD	
			2016 ^(E)	2017 ^(E)	2016 ^(E)	2017 ^(E)
한국	3.3	2.6	2.8	2.7	2.8	2.6
세계	3.4	3.2	2.4	2.9	2.9	3.3
미국	2.4	2.6	1.6	2.3	1.5	2.3
중국	7.3	6.9	6.7	6.6	6.7	6.4
일본	0.0	0.5	1.0	1.3	0.8	1.0
EU	1.1	2.0	1.7	1.7	1.7	1.6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1월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61	1,162	1,182	1,185	1,145	1,135	1,133
원/엔	934	1,068	1,074	1,019	1,030	1,013	1,004	1,029
원/위안	180.1	174.4	169.5	170.7	172.4	167.2	164.8	164.5
원/유로	1,255	1,283	1,254	1,245	1,258	1,219	1,213	1,213
유가(Dubai)	32.2	53.8	44.1	53.8	53.2	55.2	50.8	50.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1월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1.9	3.0	4.9	3.6	3.4	4.2	4.0	-
소매판매	4.1	4.3	3.2	1.8	4.1	0.5	1.6	-
설비투자	6.9	-1.3	10.2	10.5	10.3	19.5	22.8	-
수출	-8.0	-5.9	2.3	6.3	11.2	20.2	13.6	24.2
수입	-16.9	-6.9	9.4	8.0	19.7	23.3	27.7	16.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